

# 무안군 절차 무시 대형사업 '혈세 낭비'

### 용도 변경 없이 회산백련지 개발...원상 복구할 판 물놀이장 멋대로 설계 변경도...공무원 징계는 전무

무안군이 발주하는 대형 시설사업마다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무안군은 대표 관광지인 일로읍 회산 백련지를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백련지 자연생태공원개발사업'을 지난 2008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완공목표로 '회산 연꽃방죽 관광지조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련지 자연생태공원 주변개발사업'은 백련지에 인공폭포와 세계 연공원 탐방로(오작교·수상무대·집검다리·출렁다리·관찰데크 전망대)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최근 취재결과 군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업보호구역내 '유지'(저수지 주변 토지)인 부지 4만9519㎡(1만5000평)에 대해 '관광지구'로 용도를 변경해야함에

도 개발행위 절차인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변경 등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수백억원을 투입해 조성했던 사업장을 자칫 수십억원을 들여 원상 복구해야 할 실정에 놓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제안사업인 '회산 연꽃방죽 관광지 조성개발사업' 역시 민자부문 토지에 대해 실시설계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418억원(광복예산 120억, 지방비 134억원, 민자 164억 원)을 투입해 공공 부문과 민자 부문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군은 공공부문에 전통정원과 잔디광장·경관 조형 등을 추진하고, 민자 부문에 일반 상가를 비롯해 남도 먹거리촌, 황도·

백련당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사계절 생태체험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부문 전체 공종률이 88%에 이르는 동안 민자부문의 단 한푼도 투자자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군은 회산 백련지 민간 투자부지에 전남도의 심의도 받지 않고 설계를 변경해 수십억원어치를 투입해 지난해에 물놀이 시설을 만들고 올해에 파도 풀장 등 시설공사를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무안군은 지난 6월에 전남 도민체전을 앞두고 종합운동장 등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면서 7억여원을 투입해 주차장과 공원, 도로시설을 했으나 농지인 사업부지(1만6000여㎡)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까닭에 다시 4억5000여만원을 들여 원상복구를 해야 했다.

당시 김철주 군수는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없다"며 감사 등 정확한 진상파악을 지시

했지만 이와 관련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무안군은 지난 2012년 전남도 감사에서 군이 발주한 45건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총 21건에 대해 이행하지 않아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연꽃방죽 관광지 조성개발사업' 민자부문 토지와 관련하여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도 문화과와 협의중"이라며 "기존 백련지 자연생태공원 개발 등 완료시설은 최근 담당자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확인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회산 연꽃방죽 관광지 조성개발사업'의 도로 및 기반시설과 관련해 무안군으로부터 전화로만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아직 공문은 받지 못했다. 물놀이장 시설은 협의하지 않았으며, 변경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남원 신촌마을 사과따기 일손 부족 남원시 문화관광과와 사매면사무소, 남원농협 사매지점 직원들이 최근 남원시 사매면 신촌마을 농가를 찾아 사과수확 작업을 돕고 있다. /남원=정규성기자 jgs@

## 군산원협 농·수·축산물 유통문화센터 준공

### 수송동...지상 3층 규모 신선 매장·음식점 입점

군산시 수송동에 지역 농·수·축산물 유통문화센터가 들어섰다.

군산원협은 최근 문동신 시장과 진화완 시의회 의장, 시의원, 농협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축산물 유통문화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등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의 낡은 판매장(23개소) 간판을 교체하고 주변 경포천과 어울리는 지상 3층(1338㎡) 규모의 유통문화센터를 신축했다.

새로 지어진 판매장은 야채와 과일 등 농산물 판매를 위한 매장은 물론 판매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됐

고, 아침에 출하된 야채와 과일도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음식점도 들어설 예정이다.

군산시 농수산물유통과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단계 개선을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군산지역 유통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박근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공모주제는 2015 전북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200만 전북도민의 뜻과 이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며 정읍시·동학농민혁명지 등 정읍의 역사, 문화적 위상과 '맛, 멋, 흥의 천지! 정읍'의 희망적 이미지를 담아야 한다

시는 2015 전북 도민체육대회 상징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작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선작에는 분야별로 200만원(구호는 70만원), 가작은 50만원(구호는 3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2015 전북 도민체육대회는 정읍시 일원에서 내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정읍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 정읍시, 내달 9일까지 도민체전 상징물 공모

### 포스터·엠블럼·슬로건 부문 총 6점 선정...상금 200만원

2015년 전북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인 정읍시는 성공적인 대회개최와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12월 9일까지 도민체전 상징물을 공모한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공모대상은 포스터, 엠블럼, 슬로건(구호) 등 3개 부문이다.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각 부문별로 당선작과 가작을 포함 총 6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주제는 2015 전북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200만 전북도민의 뜻과 이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며 정읍시·동학농민혁명지 등 정읍의 역사, 문화적 위상과 '맛, 멋, 흥의 천지! 정읍'의 희망적 이미지를 담아야 한다

시는 2015 전북 도민체육대회 상징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작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선작에는 분야별로 200만원(구호는 70만원), 가작은 50만원(구호는 3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2015 전북 도민체육대회는 정읍시 일원에서 내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정읍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 광양시 정보화마을, 전국서 인정

### 지도자대회 최우수·장관상

광양시가 지역 정보화마을 분야 전국 최고임을 입증했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서 열린 '제12회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에서 고로쇠 정보화마을(위원장 허항)이 최우수상, 형제외방장마을(위원장 김종수)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 광양시는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유공 최우수 기

관에 수여하는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안전행정부 주최·(사)정보화마을 중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357개 정보화마을이 참여했다.

한편 광양시는 그동안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전남도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총 48회(4억3200만원)에 걸쳐 시상금을 받은 바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신안 증도 내년부터 입장료 폐지

### 쓰레기 감소·관광 불편 고려

'슬로시티' 신안군 증도 입장료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증도 주민들과 관계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장료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다음달 신안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하는 등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관광객 불편을 없애고 증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슬로시티 지정 조치와 공휴일에 집중된 관광객이 점차 주춤으로 분산되면서 교통대란·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관광객 불편을 없애고 증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좋은 인력 양성이 좋은 일자리 창출"

### 전남 인적자원개발위 회의 교육 현황·운영개선 등 논의

전남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최근 목포 상그리아비치 호텔에서 '전남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의는 공동 위원장인 우기종 전남도 정부부지사와 김호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황선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고창희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 등 21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위원회 사업추진 경과, 교육훈련 추진실적 현황, 수요조사 결과 보고

고에 이어 내년 위원회 운영개선 방안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호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위탁훈련보다 직접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전남도와 고용노동부에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건립을 건의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기종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잘 훈련된 인력을 배출하면 기업이 알아서 찾아온다"면서 적극적인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중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매 과수원 2,784㎡ 농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관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봉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시거리) 2층 23억(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도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옥,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7.9억
- 회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해남군 대흥사부근 민박집 3.8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6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용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